



## 증시 하락 배경과 대응 전략

AI 수익성 의구심 부각 및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변동성 활용하여 주도주 비중 확대 전략 유효

###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장중 낙폭을 확대하며 코스피가 7%대, 코스닥이 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14시 기준). 지난 6월 8일 이후 처음으로 양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하락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지난밤 빅테크 주가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최근 AI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조달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재차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美 메모리 반도체 및 서버 공급망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의 견조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 둘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이벤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의 SK하이닉스 ADR 상장 심사 결과가 예상보다 지연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번 주 내 승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해당 기대감으로 전일 급등했던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이 무산되면서 관련 기대감도 후퇴했습니다.
- 올해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많이 오른 한국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금일 급락에도 코스피가 연초 이후 약 101%, 대만 가권 지수가 약 60%, 일본 닛케이 지수가 약 4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 압력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예정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 앞서 선제적 매도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코스피는 여전히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코스피 8,600pt 기준 12개월 예상 P/E는 8.3배, P/B는 2.0배 수준입니다(LSEG 기준). 최근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단기 급락 이후에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가장 빠른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성장세와 반도체 이익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정을 추세 훼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주도주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